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9월 4일 수요일 (음 8월 6일) 제236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3일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전국의 홀로그램 전문 기업·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열린 홀로그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개회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화

전북도-익산시, 산·학·연 전문가들과 전문 기술 세미나 사업 내용·HUD·프린팅 등 기술 동향·활용사례 발표 TF 총괄위원장 선임 내년부터 2년동안 가이드라인 마련

전북도가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에 접 산업의 기반이 될 홀로그램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3일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신동학 홀로그램대표 등 전국의 홀로그램 전문 기업·학계·연구기관 전문가 16명을 초빙해 홀로그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정현을 익산시장, 광운대 이승현 교수 등 산·학·연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홀로그램 기술개발 방향과 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홀로그램 기술개발의 성공을 위해 도내의 산학연 전문가와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홀로그램 국내외 동향 분석과 전라북도 홀로그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 토론과 의견을 수렴했다. 첫 번째 세션은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 내용(강훈중 센터장, 전자부품연구원 홀로그램연구센터)과 사업화 실증분야(유재형 분원장, 한국조명ICT연구원 남부분원)에 대해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홀로그램 기술 동향은 ▲SKT의 이학순 박사가 SKT에서 추진하고 있는 홀로그램 관련 사업 내용, ▲(주)희스컴퍼니 이선오 대표가 '홀로그램 현미경' ▲(주)홀로그램 신동학 대표는 '홀로그램 HUD' ▲이승현 광운대학교 교수가 '홀로그램 프린팅' 순으로 홀로그램 관련 기술 동향과 활용사례를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산·학·연·관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전북의 산업 선도지 조성 방안, 홀로그램 기술의 성공 가능성, R&D의 지역 성장 기여방안, 인력양성 방안,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정책과 지자체의 필요한 노력, 지자체의 홀로그램 기업 지원 방향 등 홀로그램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생

태계 조성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TF 구성 배경 및 역할을 공유하고, TF 총괄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으로 전라북도과학기술 심의회 위원으로 예비타당성사업 기술성 평가 경험이 많은 전북대학교 노태수 교수를 선임해 기술개발 과제 확보 및 사업화 실증전략 마련 등에서 조정·중재 등 역할을 하게 된다. 향후 TF는 22년 사업화 실증에 앞서 내년부터 2년 동안 지역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실증 가이드라인과 품질 표준·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기술 개발과제 20개 세부기술 분석을 통한 우리 지역의 기술개발 참여전략을 제시하는 등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와 익산시는 12월 익산에서 개소하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를 활용하여 홀로그램의 산업 파급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 홀로그램 기업의 전북 유치를 통해 전북을 홀로그램 산업 생태계 중심지로 더욱 공고히 해 홀로그램 산업을 선도해 나간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는 탄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 경험이 있어 신산업 발굴과 육성 노후가

축적되어 있고 홀로그램산업과 접목 가능한 자동차, 문화 등의 인프라가 풍부하여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갈 수 있다"며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조언을 조율해 홀로그램 산업을 자립형 국가사업으로 육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익산=장민천 기자

전북도, 승진 내정자 발표

전북도는 3일, 국장급 1명을 포함한 23명의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다. 국장급 승진 내정자인 이승희 회계과장(사진)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전주대학교 법학과 석박사를 수여받았다. 1997년 전북도 여성정책담당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도 관광레저과장, 창조정보과장, 사회복지과장 등을 역임했다. /김진성 기자



오늘 수능 대비 마지막 모의평가

도내 2만243명 응시, 졸업생은 295명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9월 모의평가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되는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전북 지역 수험생은 115개 학교에서 총 2만243명이며 재학생은 1만9948명, 졸업생은 295명이다. 또한, 같은 날 치러지는 고1,2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은 105개 학교에서 1만 6796명, 고등학교 1학년은 105개 학교에서 1만 6674명이 응시한다. 특히,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험으로 출제 영역과 문항수 등도 동일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9월 모의평가 출제·채점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찾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험 시간은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순으로 실시한다. 또 4교시는 한국사 시험 시간이

종료된 후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시험을 치른다. 한국사 영역 문제지를 회수한 후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문제지 배부시간을 10분간 갖게 된다. 특히, 탐구영역 과목을 1개만 선택한 경우 제2선택과목을 응시하는 시각까지 대기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7일까지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17일 정답을 확정할 예정이다. 성적 통지는 10월1일 이뤄진다. 답안지 작성시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한다. 연필·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예비마킹 등 필기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모의평가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다만,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와 한국사 영역은 등급과 응시자 수만 기재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에서는 이날 수험생들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감독관을 파견해 문제지 개봉시간 및 시험시간 준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창은성 기자

도,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 1.46% 인하

전북도는 최근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1일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을 1.46% 인하하고 주택용 기본요금도 동결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20일 물가대체실무위원회와 이달 3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열고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공급사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심의한 후, 도시가스사별 경영효율화와 자구노력 강화를 통한 일부 인상요인은 자체 흡수토록하고, 공공물가 안정화를 위해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 1.46%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88%)와 일반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1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료비는 산업부장관

이 천연가스 도입가격을 감안 2개월 단위로 조정·승인하며, 도지사는 소비자요금의 12%에 해당하는 공급비용을 매년 1회 조정해 소비자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공급비용 조정으로 월 평균 50㎡를 사용하는 전주지역 주택용 소비자의 경우 가구당 연간 평균 1440원의 도시가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 지자체들의 소매공급비용 조정상황은 경기도를 제외한 수도권 등 대도시지역은 동결 또는 소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북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타 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YouTube KakaoTV NAVER TV DU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